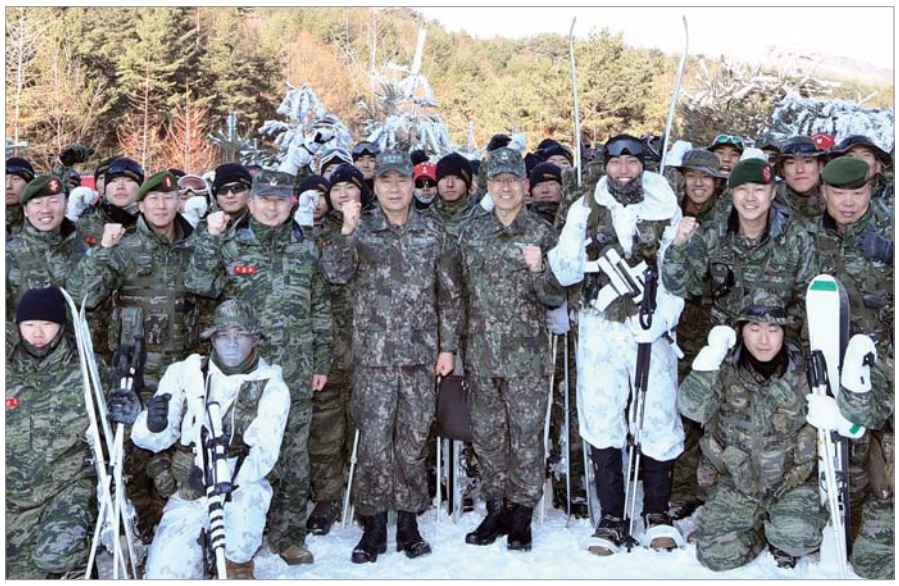

심승섭 해참총장, 해군·해병대 혹한기 훈련 현장 방문 심승섭(둘째줄 오른쪽 다섯째) 해군참모총장이 해군·해병대 설한지 훈련 현장을 찾아 임무수행 능력 완비에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심 총장은 15일 강원도 평창군 산악종합훈련장을 방문해 해군 특수전부대와 해병대 수색부대의 동계 설한지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조했다. 이어 훈련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해군·해병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언제 어떤 명령이 하달돼도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 부대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방패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병노 기자

원인철 공참총장, 공군-KIST 업무협약 체결 공군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전력발전 및 연구개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비해 미래 공군 전력에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체결식에는 원인철(앞줄 오른쪽) 공군참모총장, 이병권(앞줄 왼쪽) KIST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합의서 체결을 통해 공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소요를 창출하고, 양 기관이 개발하는 연구과제·기술 분야에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체결식에서 원 참모총장과 이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서현우 기자

국방부, 적극 행정업무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44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19년 종합평가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지난해 행정업무의 적극도 조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거나 고객감동 또는 정책개발 등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됐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7곳이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이상 장관급) 및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특허청, 해양경찰청(이상 차관급)이 포함됐다.

'보통' 등급에는 장관급 기관 중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차관급 기관 중엔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등 1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예비역과 한뜻으로 어떤 난관도 극복"

공군, 예비역 대상 정책설명회

공군은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공군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설명회는 예비역을 대상으로 '2020년 공군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역과 예비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원 총장과 공군사관학교장 등 공군 주요 직위자 40여 명과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 전우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학사장교회, 전공상유공자회, 인터넷 전우회 등 예비역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예비역들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공군 추진현황과 함께 신규 도입전력 전력화,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 공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군 100주년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난관이 많겠지만, 예비역과 현역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lgiant61@dema.mil.kr

"더 스마트한 국가방위 중심군 기대"

지작사, KIDA 노훈 원장 초청 강연

14일 지상작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노훈 원장이 사령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전쟁과 미래전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부대 제공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14일 사령부 전 간부를 대상으로 군사혁신 및 국방개혁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노훈 원장을 초청해 '전쟁과 미래전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인 지작사는 올해 창설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합동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이번 초빙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에서 노 원장은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장 환경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미래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지상작전사령부가 더욱 강하고 스마트한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r

▮ 편집=신재명 기자

세상을 이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감성 리더십
'20년 민간부사관 여군 1기 모집
부사관선발담당 : (일반) 042-550-7155~6, 7171
홈페이지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지원자격
연령 임관일 기준 만 18~27세 여성 ※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학력 고졸 이상자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고교 '20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
선발인원 000명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 '20. 1. 13.(월) ~ 2. 3.(월)

필기평가	1차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2차 평가 (체력/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 29.(토)	3. 13.(금)	3. 23.(월) ~ 4. 3.(금)	4. 13.(월) ~ 5. 8.(금)	7. 3.(금)

※ 신원조사 서류/체력평가 인증서 제출 방법 : 2차 평가(면접)시 본인 직접 제출
※ 선발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육군모집"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선발시험
1차 필기평가(국사과목 포함), 직무수행능력평가(서류전형)
2차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부인과 검사 포함), 신원조회
※ 체력평가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
의무복무기간
임관 후 4년 복무(장기 또는 복무연장 지원 가능)
대우 및 특전
•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 선발자)
• 예비역 하사 출신(전역 후 2년 이내 입영시)은 임관시 장려수당 지급